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

학습

마가복음 10장 6~9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리고 본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한 보니 엘 오스카스 자매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본다.



경전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신권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어 의롭게 함께 노력하고 끝까지 성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며, 그 어떤 대중의 가르침이나 비난도 주님의 선언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결혼을 수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보니 엘 오스카스,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5쪽)

토론

-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ChurchofJesusChrist.org)
- 우리는 어떻게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는 동시에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구주의 교리를 옹호할 수 있는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학습

창세기 1장 27~28절, 시편 127편 3절, 마가복음 10장 13~14절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는다. 자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찾아본다.



아이의 눈 속을 들여다볼 때면 전세에서 우리 곁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딸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 이런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육신을 제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받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자녀에 관한 신념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는 지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를 성취하는 셈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라고[모세서 1:39] 말씀하셨습니다. 불멸하려면 그 전에 필멸이 있어야 합니다.

(닐 엘 앤더슨, “어린이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8쪽)

토론

- 자녀와 가족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내리는 결정의 우선순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는 구주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